

이제는 예방의학적 차원의

경기 제 6지구 의료보험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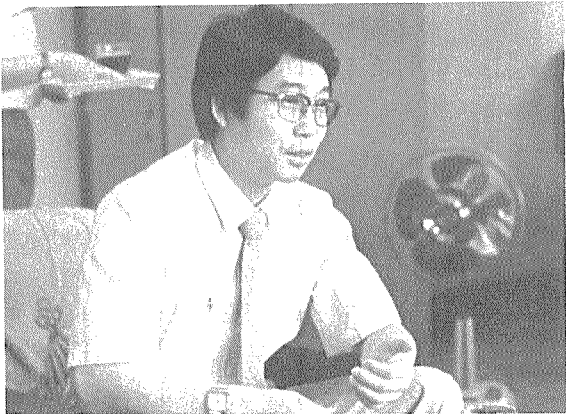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에서건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일을 해보겠다고 마음먹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주어진 기득권을 마다하고 봉사의 場을 찾아가는 것이다. 경기 제 6지구 의료보험조합 급여과장 薛東龍씨(41세).

그는 그 쉽지않은 길을 선택한 사람 중의 하나다.

일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국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그는 『역시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적절한 곳을 찾다가 이곳 의료보험조합과 인연이 닿았습니다.』라고 조합에 들어

오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근무한 기간은 짧지만, 조합원의 건강 정착에 커다란 관심을 가진 그는 조합장의 건강검사 현장을 견학과 함께 돌아보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왔다고 한다.



『의료보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료관계분야들은 예방 보다는 치료에 주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달라지기 시작한 질병 양상을 보면, 이제는 예방에 역점을 뒀야 한다는 것이 아주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쉽지 않은 것은 대다수 국민들을 포함해 관계분야 사람들의 의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거지요.』라면서, 하루빨리, 모든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시

▲ 올해는 특히 정기건강검사 참여의 저변확대에 주력하고 국민인식개선을 위해 국민건강학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겠다는 설과장.

건강관리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급여과장 薛東龍씨

키고 예방차원의 정기검사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예방의학적 차원의 국민건강관리가 의료비 절감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큼니다. 6지구 내 건강검사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타 지역에 비해 치료하는 횟수가 감소되면서 의료비 지급액수가 감소되었고, 성인병에 의한 사망비를 역시 타조합과는 달리 오히려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간염 감염자의 숫자는 현저히 저하되었지요.』라면서 설과장은 다른 지역에도 건강검사업이 정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힘있게 말한다.

이러한 발상에서 6지구조합의 조동인 대표이사를 비롯한 조합직원들의 연구 끝에 개설하게 된 것이 국민건강학교라고 했다.

『2월에 개설한 이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반 국민과 관련 사업장의 중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성인병예방과 금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고 그 성과도 매우 큼니다.』라면서, 그는 『국민건강학교를 개설한 이래 눈코뜰 새 없이 바빠졌지만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또 궁지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덧붙여 말했다.

『지금까지 기생충검사나 정기건강검사를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올해 하반기는 특히 “정기건강검사 참여의 저변 확대”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종합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건강검사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어요?』라며 더없이 밝게 웃는다.

국민인식개선을 위해 앞으로 국민건강학교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그는 또, 『저희 조합에서는 항상 현실적을 분석, 반성하고 그를 토대로 계획, 실천하는 자세를 조동인 대표이사님 이하 모든 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 자신의 생활 신조라는 설과장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니다. 자료도 더 많이 수집해야 하고, 공부도 더 많이 해야겠지요.』라고 말해 그의 책임감있고 겸허한 자세를 느끼게 했다.

농갑내기 유 금순씨와의 사이에 1남 3녀를 둔 그는 다복한 가정의 1등 가장이기도 하다. (이 은희 글)

